

한일 양국 초등학교 학교폭력 실태 비교연구

이진아*
kxxkx1000@hanmail.net

안병곤**
bgan@gnu.ac.kr

<目次>

1. 서론	3.2.1 언어폭력
2. 한일 양국 초등학교 학교폭력의 유형	3.2.2 집단따돌림
3. 한일 양국 초등학교 학교폭력의 실태비교	3.2.3 사이버폭력
3.1 신체적 폭력유형	3.3 성적 폭력유형
3.1.1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3.3.1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3.1.2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3.3.2 가해교사와 피해학생
3.1.3 가해학부모와 피해교사	3.3.3 가해일반인과 피해학생
3.2 언어적·정서적 폭력유형	4. 결론

主題語: 신체폭력(physical violence), 언어폭력(verbal violence), 집단따돌림(group bullying), 사이버폭력(cyber violence), 성폭력(sexual violence)

1. 서론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일 양국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교육부의 2016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¹⁾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초등학교는 늘고 있고 학교폭력 전체 피해학생의 67.9%에 달할 정도로 피해상황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경상대학교 대학원 일본학과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교신저자

1)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의 2015년 문부성(文部省)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폭력행위는 1만 605건으로 과거 최고를 갱신했다. 초등학교에서의 폭력행위는 1997년 이후²⁾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 1만 78건(yahoojapan 2016.4.24.)으로 처음으로 1만 건을 상회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2년 연속으로 이러한 현상이 거듭되면서 사회적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한일 양국은 연소(年少)인구가 줄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반면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따라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전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그 원인과 대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일 양국에서 학교폭력에 있어 연령이 낮아지는 문제는 초등학교에 있어 폭력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는 그 사회의 거울이기 때문에 학교폭력문제를 교육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사회현상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한일 양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지만 대부분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을 중점적으로 한 연구이며, 한일 양국 초등학생 간의 학교폭력을 비교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늘고 있는 한일 양국의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의 유형을 알아보고 그 실태를 비교하는 것은 앞으로 양국의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일본의 문부성과 한국 교육부의 학교폭력관련 실태조사 자료를 비롯하여 초등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례 등을 검토하여 이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일 양국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개념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정의가 다양한 만큼 학교폭력의 행위를 분류하는 유형 또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양국의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한일 양국에서 초등학생에게 현저하거나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형을 중심으로

2) 당초는 1,000건대였지만 2005년에 2,018건, 2008년에 5,996건, 2012년에 7,542건으로 증가하였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폭력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 폭력유형, 언어적·정서적 폭력유형을 들 수 있고 신체적 폭력유형에는 신체폭력(physical violence), 금품갈취(money snatch), 성폭력(이Sexual violence) 있고, 언어적·정서적 폭력유형에는 언어폭력(verbal violence), 집단따돌림(group bullying), 사이버폭력(cyber violence)이 있다(교육부 2016).

이에 대해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유형에 가벼운 신체폭력(light physical violence)과 심한 신체폭력(severe physical violence), 물건손괴(goods damage)가 있고 언어적·정서적 폭력유형에는 언어폭력(verbal violence), 집단따돌림(group bullying), 사이버폭력(cyber violence)으로 분류하고 있다(國立教育政策研究所 2015).

위의 한일 양국의 대표적인 학교폭력 유형을 토대로 한일 양국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을 재구성해 보면 <표1>과 같다.

<표1> 한일 양국의 초등학교 학생 학교폭력 유형

유형	종류
신체적 폭력유형 (physical violence type)	부딪히기도 하고, 노는 척을 하며 두들겨 맞기도 하고 차이기도 한다.
언어적·정서적 폭력유형 (linguistic·emotional violence type)	조롱당하거나 욕과 위협의 말, 듣기 싫은 말을 듣는다. 왕따를 시키거나 무시를 하거나 뒤에서 욕을 듣기도 한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싫은 일을 당한다.
성적 폭력 유형 (sexual violence type)	성폭력 등 신체적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이다.

위의 <표1>과 같이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폭력유형에서 한일 양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체폭력임을 알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신체폭력을 가벼운 신체폭력(light physical violence)과 심한 신체폭력(severe physical violence)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가벼운 신체폭력과 심한 신체폭력을 나누어서 분류하는 이유는 학교에서의 신체폭력의 경우 대부분이 가벼운 신체폭력이지만 드물게는 폭행에 가까운 심한 폭력이 학교폭력에 존재하고 있고 아직 일본에서는 심한 신체폭력이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文部省, 201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벼운 신체폭력과 심한 신체폭력을 나누는 기준은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체폭력이라고 통일하여 명시하도록 한다.

둘째, 한국에서는 금품갈취(money snatch), 일본에서는 물건손괴(goods damage)가 있는데, 금품갈취는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교육부, 2016), 물건손괴는 갈취의 의미보다는 돈과 물건을 도둑맞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國立敎育政策研究所, 2015) 공통된 유형으로 볼 수 없어 제외하였다.

셋째,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신체적 폭력유형에 속해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학교폭력의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성폭력에 있어서도 신체적 폭력유형만이 아니라 언어적·정서적 폭력유형으로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독립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야말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또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는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빠져 있지만, 일본의 각종 인터넷 기사와 문헌 등을 통해 엄연히 학교에서의 성폭력은 존재하고 있고, 특히 최근의 한일 양국에서의 성폭력은 점점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알 수 있기에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언어적·정서적 폭력유형에서는 한일 양국에 공통적으로 언어폭력(verbal violence), 집단따돌림(group bullying), 사이버폭력(cyber violence)으로 모두 일치함을 알 수 있는데, 학교폭력에 있어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언어폭력의 경우 초등학생부터 발생하게 되면 자칫 습관화되어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질 우려가 많으며, 집단따돌림의 경우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폭력은 이제 스마트폰 등의 소지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파급됨에 따라 초등학생 때부터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고자 한다.

그리고 모든 학교폭력이 어느 하나 단독유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특히 위의 언어폭력(verbal violence), 집단따돌림(group bullying), 사이버폭력(cyber violence)은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보다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복합적인 폭력의 형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교육부 2016).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의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의 유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유형인 신체적 폭력유형, 언어적·정서적 폭력유형,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들까지 미치고 있는 성적 폭력유형의 3개의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그에 따른 실태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3. 한일 양국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실태 비교

3.1. 신체적 폭력유형

3.1.1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2016년 일본의 문부성에 의하면 초·중·고 전체에서 신체적 폭력은 2015년에 비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교만을 살펴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그 증가율이 2015년 1만 605건, 2014년에 1만 78건으로 2년 연속으로 1만 건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문부성 2016). 신체적 폭력 중에는 학생 간 폭력 32,428건, 교사에 대한 폭력 8,835건, 대인폭력 1,450건, 기물파괴 11,533건으로 학생 간 폭력의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신체폭력은 대부분 학생 간의 폭력에 의한 것으로 초·중·고 전체에서 2013년(4.7%), 2014년(3.1%), 2015년(2.4%), 2016년(2.2%)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6). 이와 같은 점은 한국에서의 학교폭력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과 함께 최근 한국의 학교폭력의 67.9%를 차지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학생 간 폭력이 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한국의 경남 117학교폭력상담센터에 의하면 2011년 개소초기와 비교해 초등학생의 신체적인 폭력 유형은 30%이상 감소했다고 한다(다음 뉴스 2015.7.27.).

일본의 초등학교에서의 학생 간 신체 폭력행위가 가장 많은 학년은 6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폭력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중·고 전체에서 학생 간 신체 폭력행위가 가장 많은 학년은 중학교 2학년이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보다 학생 간 폭력행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에서의 학교폭력 중에서 신체적 폭력이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초등학교에서의 학생 간 신체폭력은 직접적으로 피해학생의 ‘부등교(不登校)’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문부성, 2015), 이러한 ‘부등교(不登校)’현상은 성인이 되어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³⁾와 연결될 수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인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 대상자는 학창시절에 신체 폭력 등의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山本耕平, 2012).

일본에서의 학생 간 신체폭력에 있어서의 처벌은 2013년의 「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 제정에

3)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가족이외의 사람과 교류를 거의 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자택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후생노동성).

의해 초등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경찰과의 연계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초등학교에서 가장 신체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오사가 교육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신체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과의 연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5단계에 걸친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産経新聞, 2013.9.17.).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아직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경찰과의 연계에 대해 ‘교육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신체폭력 같은 경우는 폭력의 증거를 입증하기 용이한데 비해 그 처벌에 있어 ‘서면사과’나 ‘담임재량’ 등과 같이 미온적 처리에 그치고 있어 오히려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학생 간 신체폭력은 일본의 경우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감소하고 있다. 그에 따른 처벌에 있어서도 일본은 경찰에의 개입 등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해 한국은 아직 초등학생들의 저연령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어 오히려 학교폭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3.1.2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2015년 일본의 문부성에 의하면 교사에 대한 신체폭력에 의해 처벌된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23건, 보도 24인, 중학교가 678건, 검거·보도 690인, 고교가 10건, 검거 10인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2,151건으로 천 명당 0.3%, 중학교는 6,086건으로 천 명당 1.7%, 고등학교 598건, 천 명당 0.1%를 넘고 있어 비율로 보면, 초등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아직 교사에 대한 폭력이 학교폭력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부에 보고된 27,406건의 교권침해 사건 중 학생에 의한 폭언욕설(62.5%), 수업방해(20.8%)의 경우가 80%를 넘고 있으며, 그 외의 심각한 유형의 폭행 490건(1.8%), 성희롱 467건(1.7%)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얼마 전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인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⁴⁾하고 침까지 뱉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와 같은 사건은 최근 초등학교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은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점을 훈계 하는 중에 고학년인 남학생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BS2 뉴스, 2016.3.21.). 하지만 교사폭행 사건은 학교 측에서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피해교사에 의해 은폐되지만, 학생들에 의해 촬영된 스마트폰 등의 동영상에 의해 알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뉴스, 2016.10.31.).

4) 2015년 10월 21일 이천의 기간제 교사 빗자루 폭행사건.

이와 관련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피해교사와 가해학생 사이의 ‘화해’와 ‘중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가해학생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숨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16.8.24.).

일본에서는 특히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아동들이 증가함에 따라 ‘교실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yahoojapan, 2016.10.28.). 최근의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저지르는 아동들을 ‘키레루(キレる)’⁵⁾ 아동이라고 부르고 있다(문부성, 2014).

주요 양상으로는 교사가 학생에게 잘못에 대해서 주의를 주면 「시끄러워(うるさい)」, 「못해 먹겠네(やってならない)」 등 반항적인 태도로 일변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yahoojapan, 2015.09.17.). 시기적으로 초등학교 2, 3학년부터는 시작하고 있어 비교적 저학년부터 교사에 대한 폭력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부성, 2014).

이와 같이 초등학교에서의 교사에 대한 폭력은 한일 양국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키레루’아동의 증가와 더불어 저학년까지 폭력이 파급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 고학년에서의 폭력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3.1.3 가해학부모와 피해교사

최근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본인의 자녀만을 생각하여 학교나 교사에게 부당한 일을 요구하는 학부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부모를 ‘몬스터페어런트(モンスターペアレント)’라고 한다(毎日新聞, 2016.5.24.). 이와 같이 ‘몬스터페어런트(モンスターペアレント)’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전체적으로 교사와 학교에 대한 불신과 함께 ‘내 아이가 최고’라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들 수 있다.

사례로는 학교로 매일 찾아와 자녀와 싸운 상대아동을 만나게 해달라고 행패를 부린다던가, 자녀의 교육방침에 대해 학교 측을 협박, 마음에 들지 않은 교사를 사직시키려 자녀를 결석시키고, 고의로 수업거부를 시킨다든지, 자녀에게 해당교사를 괴롭힐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山若湯神子, 2008).

실제로 2006년도에 니시토우쿄우시(西東京市)의 시립초등학교에 재임하고 있던 교사가 일부 학부모로부터 심야에 휴대전화로 폭언을 듣고, 해당 학생의 연락장에 인격공격성의 모욕을 받아 자살에 이르렀으며, 2008년에 아동끼리의 싸움에서 가벼운 상처를 입은 아동의 학부모가 사이타마현(埼玉県) 초등학교에서 4개월간에 걸쳐 불만을 토로하여 소속 교장이 자살에 이르

5) 키레루(切れる)는, 주로 대인관계에 흥분한 분노의 감정이, 참기 어려운 한계를 넘어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모습을 나타내는 일본어 속어이다.

렸다(産経新聞, 2014.5.6.). 일본의 학부모는 한국의 학부모처럼 교사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배려나 타협점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山若湯神子, 2008).

이에 대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학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5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유형은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227건 (46.5%)으로 가장 많았다. 중·고등학교에서의 가해자가 학생인 것에 반해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학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톨릭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6).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수업 중에 들어와 본인의 자녀를 차별한다며 교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거나(다음뉴스, 2015.7.13.), 보건교사가 본인의 자녀의 일에 대해 건성으로 대답했다며 보건실로 찾아와 교사의 머리채를 잡기도 한다(다음뉴스, 2017.3.2.)

위와 같이 사례의 대부분은 폭언만이 아니라 신체적 폭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교사와 학교에 대한 불신이나 전제하에 본인의 자녀에 대해 ‘차별대우’한다는 의식이 강한 것인데(가톨릭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6), 본인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학교에 대한 자기중심적이고 터무니없는 요구와 항의로 발전한 것이다. 또 한일 양국 모두 학생의 교권침해와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비교하면, 학생들의 교권 침해는 대부분 우발적이지만,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경우가 많아 교원들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는 학교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인 만큼 각 현의 교육위원회에서는 관련 매뉴얼을 보급하고 경찰에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의 인식이 일본보다 부족하고, 침해 예방 대책과 피해 교원 지원 조치,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부모에 의한 교사에 대한 폭력은 양국 모두 초등학교에서 가장 심각하고 일본의 경우 한국의 학부모처럼 공개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행하지는 않지만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벌에 있어서 한국이 미온적인데 비해 대처 매뉴얼의 홍보나 경찰에의 연계 등에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3.2 언어적·정서적 폭력 유형

3.2.1 언어폭력

2015년 일본의 문부성에 의하면 학교의 언어적·정서적 폭력유형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조롱이나 놀림, 욕설이나 위협 등의 불평, 싫은 소리를 듣는 등의 언어폭력으로 전체 중 64.5%

를 자치하고 있다. 특히 언어폭력은 초등학교에서는 전체건수 122,734건 중 121,2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지만 2014년에 비해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16년의 한국의 교육부에 의하면 학교폭력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33.3%)이 가장 많고 집단따돌림(17.3%), 신체폭행(11.9%)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학교폭력 유형 중 2015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은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사이버스토킹, 강제추행·성폭력 유형인데 전반적으로 신체적 폭력은 감소한 반면 언어폭력 및 따돌림 사이버폭력과 같은 언어적·정서적 폭력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초등학생의 70%는 이미 언어폭력피해 경험이 있고, 그중 11%는 수시로 시달리는 있다고 한다(뉴시스, 2013.4.26.). 실제로 2015년 경남 117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신고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고 대부분 학생 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는 5,027건으로 모욕이 가장 많은 33.2%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2년에는 신체적 폭행 유형이 39.3%였고 모욕이 19.7%였던 것과 비교하면 해마다 언어폭력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폭력으로는 ‘키모이(キモイ)’, ‘우자이(ウザイ)’, ‘키쇼이(キショイ)’, ‘데부(デブ)’, ‘바이킨(バイキン)’, ‘불결(不潔)’, ‘시네(死ね)’ 등이 있고 학생 간 언어폭력뿐만이 아니고 교사에 대해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부성 2015). 또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뚜렷한 이유가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石川県教育センター, 2015).

이와 같이 언어폭력이 양국의 초등학교에서 만연한 원인으로는 언어폭력이 비교적 학교폭력의 유형 중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있지만, 초등학생들에게 언어폭력 자체가 학교폭력이라는 인식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도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石川県教育センター, 2015).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언어폭력의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남들이 해서’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습관화된 언어폭력은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져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예단, 2012). 최근의 경향으로는 언어폭력 중에서도 ‘패드립’⁶⁾(부모욕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부모님을 소재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부모 가족에 대해 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특히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SNS를 통해 유포되는 ‘패드립’도 심각한 수준인데, 그것은 주로 부모나 웃어른을 욕설이나 성적 비하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엄×’ 등의 말로 엄마를 ‘거리

6) 패드립이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패드립’은 ‘패륜’과 ‘애드리브’의 합성어다. 부모나 조상 등 웃어른을 욕설 및 성적 비하의 소재로 삼아 공격하거나 개그의 소재로 삼아 놀린다는 의미다.

의 여자'등으로 비유하는 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다음뉴스, 2017.3.24.) 그 배경에는 부모의 언어습관, 미디어 등이 필터링 없이 전해지면서 사회·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언어폭력은 일본의 사이버공간으로 퍼져 학교비공식사이트만 3만8천개에 이르고 무차별적인 비방·중상 등의 언어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문부성, 2015) 학교폭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언어폭력이 지나치게 되면 '집단따돌림' 그리고 '신체폭행'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한다(교육부, 2015). 따라서 언어폭력을 예방함으로써 더 큰 폭력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언어폭력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 감소한 반면 한국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모두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보다 학교폭력이라는 인식이 약해 습관화되고 있으며 사이버폭력과도 연계되어 더 복합적인 학교폭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집단따돌림

2015년 문부성에 의하면 집단따돌림은 초·중·고 전체에서 35,932건에 이르고 있고 학교폭력 중에서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많은 유형으로 주로 '열외'나, '무시'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후쿠시마(福島)출신 피난 아동들을 '방사선이 오염됐다'고 집단따돌림하는 일명 '원발이지메(原発いじめ)'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NHK, 2016.12.16.), 급기야는 배상금관련 협박까지 이어져 150만엔(万円)에 달하는 돈을 뺏기는 등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집단따돌림사건이 일본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이유는 아이들의 사회가 어른들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일본사회의 방사능에 막연한 두려움 등이 '후쿠시마피난민'들을 은연중에 배척, 차별하는 정서로 나타나고 있었고 이것이 '나와 다른 것'은 '이상한 것', '두려운 것'등의 차별로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이라는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에 한국의 초등학교생들을 중심으로 '티아라놀이'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 놀이는 친구 중 한명을 '왕따'로 지목하여 문자, 채팅, SNS 등을 통해 그 사람을 일제히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다음뉴스, 2014.10.30.). 미디어에서는 집단따돌림의 잘못된 점과 피해자의 고통 등에 대해서 보도했지만, 결국 초등학교생들이 배운 것은 오히려 흥미롭게 따라할 새로운 놀이였다는 점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은 1960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경쟁주의 교육이 확산되었고 1980년대 학생들

간의 집단따돌림이 만연했다. 특히 같은 반 아이들이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아이 앞에서 그 아이의 ‘모의장례식’을 치른 이른바 ‘장례식놀이사건(葬式ごっこ)’⁷⁾이 일어나 일본은 집단따돌림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yahoojapan 2016).

하지만 집단따돌림은 주로 초등학교·중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며 집단따돌림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따돌림을 발생·방치되도록 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문부성, 2014). 실제로 집단따돌림을 하나의 놀이나 게임감각으로 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죄책감 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교육정책연구소, 2011).

이와 관련하여 2014년 문부성에 의하면 모든 학교폭력 유형은 중국에는 ‘집단따돌림’으로 변하고 이것은 피해자의 ‘부등교(不登校)’로 이어짐을 알 수 있는데, 학교폭력이 계기로 파악된 ‘부등교(不登校)’는 초등학교가 309인으로 나타났다. ‘부등교’는 심하면 ‘자살’ 혹은 ‘학교 중퇴’로 이어지게 되고 교육받을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도 2011년에 집단따돌림에 따른 폭력을 못 견딘 대구의 한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초·중·고교에서는 그 동안 가해학생의 위협과 교사들의 무관심 속에 묻혀 있던 집단따돌림의 적나라한 실상이 속속 공개되었다.

하지만 집단따돌림의 이유에 대해서 장난(35.3%), 이유 없음(20%)으로 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상대방의 잘못(17%), 오해(9%), 화가 나서(8%)로 나타나 집단따돌림의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데 비해 가해자들은 가벼운 장난쯤으로 생각해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예단, 2012).

이와 같이 집단따돌림에 대해서 한일 양국 모두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교생들에게 많은 유형으로 놀이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집단따돌림의 형태도 변해 일본에서는 ‘원발이지메’로 한국에서는 ‘티아라놀이’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3.2.3 사이버폭력

2015년의 문부성에 의하면 일본에서의 초등학교에서의 사이버폭력은 전체 이지메건수 중 4.2%를 차지하고 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일본의 초등학교생들의 사이버폭력의 증가배경으로는 스마트폰 소지율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비례하고

7) 나가노후지미중학 이지메자살사건(中野富士見中学いじめ自殺事件)은 1986년(昭和61年)에 동경도 나가노구에서 일어난 남중생의 자살사건이다. ‘장례식놀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고, 학급담임이 이지메에 가담하는 등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지메에 의한 자살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건이다.

있다(소년교육진흥기구, 2016). 나아가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PC외에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닌텐도(ニンテンドー)DS’, ‘위(Wii)’ 등의 게임기와 교육용으로 배부된 ‘태블릿’ 등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고 그 중에는 SNS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문부성, 2015).

이에 따라 일본은 2014년 이지메방지법에 ‘사이버 왕따’에 대한 법률을 제정과 함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에도 노력해왔지만,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범죄로도 이어지는 것은 물론,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모두 초등학생이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경찰청, 2015). 일본의 초·중·고에서 사이버 범죄유형으로 가장 많은 것은 피해자의 나체를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하고, 그대로 사이버 상에 올리거나 협박하는 것이 가장 많았다. 특히 여학생들은 사이버 상에서의 ‘만남계 사이트(出会い系サイト)’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그 위험성이 증가일하고 있다(문부성, 2015).

한편 2016년 한국의 교육부에 의하면 초·중·고 전체에서 사이버폭력 피해 비율은 2015년 4.5%에서 14.2%로 약 3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의 증가배경으로는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소지율의 증가와 SNS 사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의 약 86%가 스마트폰으로 SNS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종류는 ‘카카오’ 관련 SNS로 74.6%에 달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의 SNS의 활발한 사용으로 인해 인관관계망을 두텁게 하고 있지만, 역으로 가장 큰 단점으로는 욕과 줄임 표현과 같은 나쁜 언어표현을 하는 점과(교육부, 2016).

실제로 2013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하면 사이버 상에서 남을 따돌리거나(29.3%),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30.5%), 사이버 상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다(30.7%)고 답했다.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카카오톡’으로 ‘카따’⁸⁾ ‘카톡감옥’⁹⁾, ‘떼카’¹⁰⁾, ‘방폭’¹¹⁾ 등의 사이버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악플’을 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양한 앱을 통해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는 것과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에서의 사이버폭력은 주로 게시판과 블로그, 프로필사이트(プロフィールサイト)에 비방과 중상의 내용을 올리는 사이버언어폭력과 또 특정의 아동인적 가장하여 무단으로 블로

8) 카카오톡에서의 왕따를 의미하는 것.

9) 괴롭힘이 싫어 단체 채팅창에서 나간 학생을 계속 초대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뜻한다.

10)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집단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를 일컫는 은어.

11) 단체 채팅방에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모두 퇴장해 피해 학생을 온라인에서 ‘왕따’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그 등을 작성하고, 그 특정의 아동의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뒤 「한가하니 전화해(暇だから電話して)」 등을 올려 개인정보가 노출된 아동이 타인으로부터의 전화가 걸려오는 등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문부성, 2014).

또 일본에서는 최근 ‘라인(LINE)’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라인이지메(LINEいじめ)」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아오모리현(青森県)의 교육위원회에 의하면 ‘라인(LINE)’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 중 16%가 「라인하즈시(LINE外し)」¹²⁾와 「키도쿠스루(既読スルー)」¹³⁾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룹에서 빠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라인이지메(LINEいじめ)」를 감수하고라도 완전한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의 일본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 상에서의 왕따는 즉시 현실의 왕따로 이어지기 때문에 라인(LINE) 그룹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전체 급우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과 같은 해석으로 집약된다(yahoojapan, 뉴스 2016.9.6.).

이와 같이 사이버폭력에서 양국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이 스마트폰의 소지율과 더불어 더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일본은 ‘라인하즈시’ 등의 ‘라인’을 통한 피해가 많고 한국에서는 ‘카톡’을 통한 ‘카카오톡왕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오프라인에서의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의 폭력과 결합하여 정서적인 폭력을 악화시키는 강력한 유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3. 성적 폭력 유형

3.3.1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2006년 11월에 일본의 효고현(兵庫県)미야자키시(宮崎市)의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 성적이 지메사건은(yahoojapan.com), 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어덜트 비디오’의 영향으로 동급생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때 다른 남학생들도 그 장소에 있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또 2011년 나가사키의 초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동급생 앞에서 하반신이 노출되는 사건(googlejapan.com)으로 인해 피해남학생은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 물론 가해소년은 체포되었지만, 소년원에는 보내지지 않았다. 이유는 학교 외 장소였다면 성범죄와 강요죄, 폭행죄로서

12) ‘라인(LINE)’ 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메시지를 못 받거나, 그룹채팅 때 본인만 참여를 못하는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것

13) ‘라인(LINE)’에서는 자신이 올린 메시지를 상대가 읽으면 화면에 「키도쿠(既読)」라고 표시되는 기능이 있어 메시지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 있어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형사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내에서 학생 간에 일어났다는 이유로 단순한 이지메로 인정되었고 그에 준하여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産経新聞, 2011.12.1.).

이와 같이 일본에서의 학교에서의 학생 간의 성폭력의 경우 미성년인 아동, 때로는 형법상 죄를 물을 수 없는 13세미만의 아동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 처벌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성폭력의 이유가 단순한 ‘장난이었다’, ‘호기심으로 그랬다’ 등의 이유를 들고 있어 결과만 놓고서 처벌을 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한다(岩手県教育委員会, 2014).

하지만 일본에서 대부분의 학교 내의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결과 최초에는 ‘스커트 들추기’ 같이 단순히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실제로 단순한 괴롭힘과 성폭력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과 초등학교 정도의 저연령이라도 해도 지속되는 괴롭힘은 성폭력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 간의 성폭력을 학교폭력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성폭력으로 분류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012년 오사카후(大阪府) 경찰의 소년비행정서(少年非行情緒)에 의하면 강제 외설 행위 5인 중에 4인이 초등학생으로 이성의 동급생의 속옷에 손을 넣거나 하반신을 강제로 만지게 한다든지 하는 성적이지메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외설행위가 많이 늘고 있는데, 실제로 2016년 경찰청에 의하면 2015년 1년간 본인의 나체 사진이 촬영된 18세미만의 아동포르노 피해자는 과거최대인 905인으로 그 중 41.5%가 ‘지가토리(自画撮り)¹⁴⁾’ 피해자로 그 중에는 초등학생도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의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은 학교폭력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고 학교 측에서도 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시에는 그에 적합한 징계절차를 두어 「은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교육부에 의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생 간 성폭력 건수는 2012년 640여 건에서 2015년엔 천 8백 40여 건으로 3배가량이나 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초등학생 성폭력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성폭력 관련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현황’ 자료를 보면,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2013년 130건에서 지난해 439건(3.3배

14) ‘지가토리(自画撮り)’라는 것은 스스로 본인의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거나 사이트에 올리는 것

증가)로 중·고등학교에 비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유형은 학생이 학생에게 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에서는 ‘또래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꼭 남아가 여아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아가 남아에게 남아가 남아에게 등의 다양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초등학교에서의 성폭력에 관해서 전학 등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 간의 성폭력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는 학생 간의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른 처벌도 단순한 괴롭힘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학생 간 성폭력이 가장 많았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발달함에 따라 ‘또래성폭력’ 등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2 가해교사와 피해학생

2015년 한국의 검찰청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중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35.1%에 달했다. 2014년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총 29,863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그 중에는 학생의 교육과 보호의 의무가 있는 교직원에 의해서도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관련하여 교사들의 잇단 성추행 사건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교직원과 학생 간 254건(33.9%)이 발생했고(교육부, 2015), 실제로 최근 3년간 문제교사 징계현황의 유형을 보면 성범죄가 53명으로(4.8%)를 차지하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성범죄 교사 46%가 여전히 교단에 있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지만(매일경제 2015.8.24.), 최근에는 여고생 제자 2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받는 등 처벌이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7.5.6).

하지만 교사들의 성범죄 실상은 공식 통계치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중론인데 이유는 가해 교사보다 상대적 약자인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다음뉴스 2016.8.30.).

대부분 한명의 가해자의 상습적인 범죄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임교에서 문제가 있던 교사가 버젓이 다른 학교에서도 성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혐의입증 등이 어려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교직원에 의한 ‘스쿨세쿠하라(スクールセクハラ)’¹⁵⁾가 심각한 문제

1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전문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섹슈얼·하라스멘토 교직원 이 아동 등에 대해서 불쾌한 생각을 주는 성적인 언동과 외설적인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뿐만

로 나타나고 있다(朝日新聞, 2016.2.24.). ‘스쿨세쿠하라’는 가르치는 제자에게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이 외설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이로 인한 사건으로 연간 200명 이상이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한다.

문부성에 의하면 2015년도에 제자에의 외설행위로 징계와 훈고 등의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의 교원은 224인으로 늘었고, 이것은 쇼와 52년의 조사개시 이후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노동성, 2014). 외설행위의 대상은 40.6%가 교원의 근무처의 아동이었고 증가경향에 있는데, 문부성은 증가의 배경에 대해서 「스마트폰의 SNS」를 통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가장 많은 유형으로는 「몸에 접촉하는 것」 68인, 「도촬·훔쳐보기」가 49인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가장 많아 68인이었고 일본 전역 중 동경도(東京都)가 최다로 23인, 규슈(九州)는 후쿠오카(福岡)가 11인이었다(西日本新聞, 2016.12.23.)

교사와 학생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통한 권력’을 이용하여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주로 상담이나 면담을 핑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SNS 등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문부성에 의하면 최근에 제자에게 외설행위를 하여 처분된 교원이 뒤를 잇는 가운데 그에 대한 방지책으로 아동과의 메일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교육위원회가 늘고 있고 일본전역에서 15개의 현교위(縣教委)가 참여하고 있다(朝日新聞, 2015.3.25.).

일본에서는 학교에서의 특히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중대한 사항이어서 각 현의 교육위원회마다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스쿨세쿠하라(スクールセクハラ)’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가해교사들의 잘못된 의식이었다.

가해교사들은 「해당아동과 연애편계였다」 「해당아동이 싫어하지 않았다」 등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아동이 본인의 학교의 교사이기 때문에 상담하고 싶어 하는 것」 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학생들에게 남자로서 인기가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池谷孝司, 2016).

이와 같은 점은 ‘스쿨세쿠하라의 실태’(후생성, 2015)에서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가해교사는 자신이 아동에게 가지는 권력과 아동이 싫어하고 있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의 시선도 피해자 쪽에 편견을 가지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이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일본의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이 아니라, 보호자와 졸업생 등, 교직원이 직무상관계하는 사람도 대상이 된다).

서 증가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교사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부족을 들었고, 한국의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혐의입증 등이 어려워 문제를 가진 교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3 가해일반인과 피해학생

2014년 일본의 경찰청에 의하면 일본에서 13세미만의 아동성폭력 피해사건은 2006년도에는 1.4%였던 것이 2014년에는 1.9%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사건의 유형 중 비율이 높은 것은 약취·유괴가 50.8%(95건), 강제외설행위가 14.5%(1,054건), 강간이 6.1%(76건)이었다.

이에 비해 한국의 13세미만의 아동피해자 성폭력 유형으로는 강제추행 혐의가 2,129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강간과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 음란물 제작 등이 뒤를 이어, 일본은 약취나 유괴가 많은 반면, 한국은 강제추행 혐의가 가장 많을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자아동이며, 남자아동 비율은 한국 4.0%, 일본 2.6% 순으로 한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면식범비율은 한국 39.4%, 일본 20.6%의 순으로 나타났고 친족성폭력 비율 역시 한국 11.9%, 일본 2.0%의 순이었다. 가해자는 각국에서 모두 거의 대부분 남자였지만, 가해자가 여자인 비율은 일본 0.6%, 한국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국의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아동 인구대비 성폭력 발생 비는 한국이 16.9건이고 일본은 6.8건이어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2.5배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의 아동성폭력 발생률이 한국보다 낮은 이유는 일본은 아동성폭력 대책이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민하게 세우고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어린 아이를 노린 성폭력에 대한 단호한 징벌의식이 공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수상한 어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아동들에게 조금이라도 느낌이 이상한 어른을 보면 부모를 통해 바로 신고하게 교육하고 있으며, 일본 경찰은 각각의 지역별로 신고 내용을 그대로 게시한다고 한다.

따라서 ‘명백한 추행’은 물론이고, ‘20대 남자가 몇 학년이나고 물었다’, 혹은 ‘30대 아저씨가 집이 어디니, 가방 들어줄까 라고 말을 걸었다’ 같은 사소한 언행까지 죄다 신고하고 또 게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아이들 주변의 어른들을 선의의 눈만이 아닌, 일단 의심의 눈으로 지켜보자는데 일본 사회 전체가 합의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초등학교인 것으로 나타났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13세미만의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22.7%이고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가족 및 친척이 범죄자인 비율은 22.8%로 13세 이상

(7.9%)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성폭력의 발생장소는 초·중·고 전체적으로는 학교 내 발생이 61.7%로 학교 외보다 많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등·하굣길, 학원, 체험학습 차량 등 학교 외 장소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성폭력의 피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도 특히 아동에의 휴대전화 등의 보급에 의해 커뮤니티사이트 등의 이용에 기인하는 복지법¹⁶⁾ 등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중에 ‘커뮤니티사이트’ 및 ‘만남계 사이트’에 기인해서 범죄피해를 당한 아동 수는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높은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 경찰청에 의해 2015년 중의 커뮤니티사이트에 기인하는 아동피해의 사범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아동과의 성교목적이 72.3%, 아동의 외설동영상 수집목적이 13.8%였다. 용의자가 연령 등 자신의 프로필을 사칭한 것이 43.4%, 용의자와 피해아동과 주고받은 커뮤니티의 ‘미니메일(ミニメール)’¹⁷⁾에서 직접 메일 등에 옮겨 진 것이 86.4%였다.

사이트에서 처음 만난 뒤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기간은 평균 1~2일 걸리고 90% 이상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커뮤니티사이트’가 ‘만남계 사이트’에 비해서 높은 아동 범죄율을 보이는 이유로는 ‘만남계 사이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와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한 접근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범인들의 80%가 ‘라인(ライン)’ 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 아동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폰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 부모들의 통제가 어렵다는 점도 피해를 늘리는 요인이 됐다. 피해 아동의 58%가 보호자로부터 아무런 주의를 받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아가 94.9%(4,029명)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남아도 5.0%(214명)로 나타났다. 남아 피해자 중 209명은 강제추행, 5명은 음란물 제작 등의 피해자였다.

이와 같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아동성폭력이 2.5배가 더 많이 발생하는 있는데, 그 배경으로는 일본은 아동성폭력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면식범이나 주변의 사람들에 의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 경찰에서는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범죄(복지법)의 단속과 피해소년의 발견·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17) 게임 속에서 친구들끼리의 직접메일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게시판이나 일기 등의 코멘트리 등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것과 직접 메시지를 하고 싶은 경우 등에 이용한다.

4. 결론

한일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유형, 언어적·정서적인 폭력유형, 성적 폭력유형으로 나누고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신체적인 폭력유형에서 일본은 초등학교에서의 신체적인 폭력행위가 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신체적인 폭력인 줄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학교폭력의 대상이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에게도 향해 있고 그 배경으로는 ‘키레루아동’의 증가를 들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학생에 의한 교사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학생보다는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일본에서 이미 교사에 대한 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주로 넣고 조사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 교사개인의 일쯤으로 치부되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두 번째, 언어적·정서적인 폭력유형에서는 언어폭력은 한일 양국의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중 비중이 가장 높고 대부분의 언어폭력은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등으로 변해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사이버언어폭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에서는 일본에서는 최근 ‘원발이지메’ 등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라인이지메’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사회 곳곳에 완전한 왕따와 관련된 놀이문화 등을 들 수 있다.

사이버폭력에서는 초등학교생들의 스마트폰의 소지율의 증가에 인하여 ‘학교비공식게시판’, ‘프로필 사이트’, ‘라인’ 등에서의 메일내용이나 사진 등의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 ‘라인이지메’등의 왕따행위, ‘가장메일’로 인한 인터넷사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경우 주로 ‘카카오톡’ 등의 SNS에서의 피해와 함께 ‘게임 사이트’의 채팅란과 ‘포털게시판’ 등에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악플’이나 ‘욕설’을 빈번하게 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성적 폭력유형에서는 일본에서 초등학교생 간의 외설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처벌에 있어 단순한 괴롭힘 정도의 이지메정도의 처벌에 거치고 있어 학생 간의 성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학생 간 성폭력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는 인터넷의 발달로 유해매체의 접촉으로 인한 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그로인한 ‘성폭력 인식의 민감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 일본에서는 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쿨세쿠하라’가 증가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학생을 이성으로 생각하는 교사들의 인식 문제와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오는 아동과의 차이 등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도 최근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자가 주로 저연령의 여학생이라는 점과,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학교라는 에서 혐의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처벌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또 일본에서 13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의 성폭력은 계속 늘고 있는데, 최근에는 ‘만남계 사이트’ 등에서의 ‘지카토리’등을 통해 사이버 상의 범죄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일본에 비해 아동성폭력이 2.5배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큰 배경으로는 일본은 ‘수상한 어른신고센터’등의 운영을 통해 아동성폭력의 방지에 예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어 제도적 창치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의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신체적인 폭력유형이 한국에서는 언어적·정서적인 폭력유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에 관해서는 한국에서는 학생 간 성폭력이 일본에서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폭력은 양국의 초등학교생들의 스마트폰의 소지율의 증가로 인해 사이버폭력과 연계해 점점 복합적인 폭력의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어 초등학교에 적합한 학교 폭력예방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가톨릭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2016)「교사직무스트레스·건강실태설문조사」<http://news.sbs.co.kr/news/>
 검찰청(2013)「13세미만 아동 성폭력실태」<http://cafe.daum.net/ChildrenSafety/>
 교육부(2016)「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http://if-blog.tistory.com/>
 _____(2015)「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http://if-blog.tistory.com/>
 _____(2014)「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http://if-blog.tistory.com/>
 국민권익위원회(2016)「학교성폭력 민원 분석결과」<http://blog.daum.net/>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http://cafe.daum.net/www012com/>
 보건복지부(2013)「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http://www.news33.net/news/>
 _____(2014)「한국의 아동빈곤율」<https://brunch.co.kr/@brunchaoer/9>
 여성가족부(2010)「국내외 아동 성폭력 특성 분석 및 아동보호체계 연구결과보고서」<http://cafe.daum.net/>
 푸른나무청예단(2012)「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요약 보고서」<http://blog.naver.com>
 한국교총(2015)「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http://blog.naver.com/>
 GSMA·MSRI(2009)「세계청소년 이동통신 이용형태 조사」<http://news.inews24.com/>
 한국교육개발원(2010)「전남·충남지역의 초·중·고교생설문」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KISA(한국인터넷진흥원)(2011)「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보고서」<http://blog.naver.com/>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한국의 청소년 게임중독보고서」<http://www.nypi.re.kr>
 한국디지털정책학회(2012)「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학교폭력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http://www.policy.or.kr>

- 小野田正利(2008)『親はモンスターじゃない!』、pp.17-56
 金子元久(2006)「体系的な改革 これから」pp.12-25
 山本耕平(2016)「支援の哲学と方法をめぐって―若者問題に関する韓日間比較調査からひきこもり」、
 pp.15-40
 山若湯神子(2008)『モンスターペアレントの正体』、pp.12-42
 石川県教育センター(2015)「いじめに繋がる言葉の地図」pp.11-27
 岩手県教育委員会(2016)「スクールセクハラの有意味点」www.pref.iwate.jp/soshiki/
 大阪府警察庁(2012)「少年非行情緒」www.police.pref.osaka.jp/05bouhan/hikou/
 奈良県(2016)「事例に習ういじめ対応方案」www.pref.nara.jp/secure/39467/ijime.pdf
 警察庁(2014)「いじめに起因する事件の検挙補導」www8.cao.go.jp/youth/suisin/hyouka/k_13/pdf
 少年教育振興機構(2016)「日本の小学生スマホ保有率」www.garbagenews.net
 文部科学省(2008)「ネット上のいじめ」に関する対応マニュアル・事例集(学校・教員向け)<http://www.mext.go.jp/>
 _____(2014)「いじめ問題に対する事例集」<http://www.mext.go.jp/>
 _____(2014)「平成25年度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問題に関する調査」<http://www.mext.go.jp/>
 _____(2015)「平成26年度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問題に関する調査」<http://www.mext.go.jp/>
 _____(2016)「平成27年度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問題に関する調査」<http://www.mext.go.jp/>
 厚生省(2014)「児童虐待の定義と現状」www.mhlw.go.jp
 _____(2015)「セクハラの実体」nakagawa-consul.com
 内閣府(2016)「若者たち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環境実態調査」<http://www8.cao.go.jp/>

논문투고일 : 2017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7년 08월 06일
 2차 수정일 : 2017년 0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8월 17일

 <要旨>

한일 양국 초등학생 학교폭력 실태 비교연구

이진아·안병곤

한일 양국의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신체적인 폭력유형이 한국에서는 언어적·정서적인 폭력유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에 관해서는 한국에서는 학생 간 성폭력이 일본에서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폭력은 양국의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의 소지율의 증가로 인해 사이버폭력과 연계해 점점 복합적인 폭력의 양상으로 변져가고 있어 초등학교에 적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Comparative Study on School Viole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and Japan

Lee, Jin-A ·An, Byoung-Gon

School violence in elementary schools in both Korea and Japan is increasing. In Japan, physical violence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in terms of verbal and emotional violence. Regarding sexual violence, sexual violence among students is increasing in Japan, and sexual violence by teachers is increasing in Japan. Such violence is increasingly associated with cyber violence a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the occupancy rate of smartphon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both countries, It is urgent that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suitable for elementary school is urgent.